

## 양돈업, 환경보전형 산업으로 육성할 때

월간양돈 창간 15주년을 맞아 그동안 본지가 양돈업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집필진 여러분, 그리고 본지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광고주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양돈불황이 극심할때, 양돈관련 기술과 정보의 부재로 산업발전에 어려움을 겪을때, 근대양돈의 초창기에 태어난 월간양돈이 국내 양돈산업 발전에 끼친 영향은 실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월간양돈이 그동안 국내외의 최신 양돈정보와 기술을 양돈업계에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한국의 양돈산업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부정책을 비판하기도 하고, 양돈업계의 여론을 정확히 전달하고 형성하는 등 대화의 광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월간양돈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철히 판단해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경제질서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내 양돈업계가 살아남고, 제2도약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우리는 실로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는 생존권과 결부된 실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오랫동안 끌어오던 UR협상도 농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채 국회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GATT에 제출한 C/S에 따라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쿼터제에 의해 돼지고기를 수입해야만 하고, '93년 7월부터는 시장을 전면개방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기다릴 것도 없이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장기간 생산비를 밀돌던 돼지가격이 회복세를 보이자마자, 즉시 돼지고기 1만톤을 수입하는 등 고단위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처에서는 오는 '96년부터 돼지분뇨 처리시설과 배출수 방류기준을 최고 40배 이상 강화하는 내용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국내외 양돈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대통령의 14대 대선공약이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건의한 사료 등 축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농발대책"에 끝내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100만 양축농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안겨 주었습니다. 부



전 동 용

(대한양돈협회 회장)

가세 영세율 적용 문제는 긴 설명도 필요없이 100만 양축농민들과 학계, 언론계, 경실련 등 각계에서 지난 10여년간 100회 이상 대통령과 정부, 국회, 정당에 건의해온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이자, 정부의 축산업 발전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장 내년부터 수입돼지고기와 싸워야 하는데, 경쟁상대국 축산농민들은 부담하지 않는 10%의 부가세를 등에 짊어지고 어떻게 경쟁을 하란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문제를 포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UR협상 타결후 축산업이 농업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축산업을 농촌의 주소득원으로 육성시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축정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가축분뇨를 폐수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 자원으로, 유기질비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돼지 분뇨는 화학비료로 산성화된 농토를 옥토로 바꾸주는 유기질비료로서 귀중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양돈업을 환경보전형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 개정 또는 새로운 법 제정과 인식전환, 제도개선, 연구, 보조 또는 장기저리의 자금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환경보전형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농발대책”에서 밝혔는데, 이는 올바른 방향 설정으로 양축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하고, 학계, 업계 등 각 분야에서도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축분뇨의 유기질비료 생산에 따른 제반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생산농가와 이용농가간에 원활하게 유기질비료가 유통될 수 있는 채널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냉혹한 국제경쟁시대를 살아가야 하며,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하겠습니다.

창간 15주년을 맞는 월간양돈은 이같은 시대적 상황을 냉철히 파악하고, 진정 양돈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양돈농가들과 함께 끝까지 동고동락 할 것입니다.

월간양돈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양돈업계 종사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